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6-직권-00001 학생체벌 및 휴식권 침해 등  
피 해 자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들  
피 조 사 자 ○○○(○○○○초등학교 6학년 ○반 담임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는 학생 생활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회 체벌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3일 동안 박탈하여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였으며,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에게 교실 앞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교사 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 ○○○○초등학교장에게,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고, 수일동안 쉬는 시간을 박탈하고, 세월호 리본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6. 4. 21.(목),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교사에 의해 다수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경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6. 4. 27.(목)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달 28.(목), 29.(금)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설문 조사, 관련자 문답 등을 실시하였다.

## 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2. 당사자 및 관련자의 주장

가. 피해 학생들의 주장(2016. 4. 27. 위 학교 6학년 ○반 남학생 ○  
○명, 여학생 ○○명 총 ○○명 집단면담 결과)

#### 1) 체벌 관련

피조사자가 평소 수업에서 사용하는 나무막대기는 학생들을 때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3월말~4월초 경 ○○○ 학생이 아파서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선생님께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티껍냐?”(사납게 대하냐, 차갑다, 짜증 나냐 등 의미)고 하시면서, 평소 들고 다니는 지시봉으로 위 ○○○ 학생의 어깨를 찔렀다. (때린 것은 아님)

피조사자는 쉬는 시간에 늦은 경우, 수업시간에 떠든 경우, 점심시간에 욕하면서 떠들었을 때, 수업시간이 되었는데 앉아 있지 않았

을 때, 수업시간이 되었는데도 책을 안 펴놓았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 학생만 ‘엎드려뻥쳐’를 5분 정도 하도록 했고, 반 전체에게 ‘엎드려뻥쳐’를 시키지는 않았다.

‘엎드려뻥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 학생인데, 3~4번 정도 했고, 여학생들도 많이 했다. ‘엎드려뻥쳐’를 할 때, 학생들이 여러 명(7~8명)인 경우에는 교실 뒤 사물함 앞쪽에서 하고, 한두 명일 때는 교실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는 3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잘 시키지는 않고 있다. ‘엎드려뻥쳐’가 학급교칙으로 있지는 않다.

4월 중순경, 학생들이 잘못된 사안(어떤 학생이 떠들어서)이 생겨서, 피조사자가 학생들에게 한 손을 90도로 들고 있도록 지시하여, 반 전체가 3~5분 정도 손을 90도로 들고 있었다.

## 2) 휴식권 침해 관련

‘혼나는 기간’ 이라고 해서, 지난 주 화, 수, 목(4. 19. ~ 21.) 3일 동안, 피조사자가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교실에 조용히 앉아 있게 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제외하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는 수학여행 때문에 애들이 들떠 있었기 때문(아침시간에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떠들고, 충고를 해도 말을 안 듣고 하는 등)이었다.

## 3)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세월호 리본’을 체육선생님이 만들어서 나누어 주어, 들고만 있었는데, 피조사자가 ‘리본을 차지 말라’고 하였다. “군인은 나라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추모하지도 않으면서, 니네가 이런 것(세월호)까지 슬퍼하면서 챙겨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월호는 단순한 교통사고일 뿐이다,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 달고 다니면 혼을 내주겠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세월호 리본’의 고리를 손에 걸고 돌리거나 리본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패션 아이템 아니고, 진짜로 슬프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등의 말씀을 하였다.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화요일이었던 것 같다.

6학년 학생들 중 우리 반만 아무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았다. 달고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한다”, “멋으로 달고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다. 다른 반 애들(특히 ○반)은 거의 다 달았으며, 우리 반(○반)은 달려고 했는데 선생님께 혼날까봐 달지 않았다. 친구들끼리 ‘답임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다는 게 이상한 사람인가?’는 등의 이야기도 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선생님 혼자만 안 달면 되지, 굳이 저희에게 달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4) 행동자유권 침해 관련

피조사자가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말라(쉬는 시간이어도 쓸 수 없음)’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는데, 3~5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

이라고 배웠으며, 당연히 교실 앞문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혼날 것 같아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나. 피조사자의 주장

### 1) 체벌 관련

○○○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수업시간에 절제를 못하는 행동을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수업에 안 들어오는 등 수업 분위기를 해쳐 종종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위 학생에게 엄하게 말하여 지도한 것이고, 지시봉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지시봉으로 어깨를 찔렀다고 하는 것은, 엄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옆드려뻥쳐’를 시킨 것은 2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6. 4. 4. 남학생 5명이, 3명은 망을 보고 2명이 아무도 없는 6학년 ○반 교실에 몰래 들어갔는데, ‘선생님도 안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일 수 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교육을 했다. 교육을 하였는데도 남학생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피식 피식 웃으며 장난을 쳐서, 엄하게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2명은 ‘옆드려뻥쳐’를 시키고 ‘내려가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2~3분 정도 시켰다. 또 한 번은, 수업종이 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수업준비를 하도록 하였는데,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 교실 뒤에 잠시 서 있게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아, 2~3분 정도 ‘옆드려뻥쳐’를 시킨 것으로 기억한다. 위 2번외에는 없는 것

으로 기억한다.

수학여행(2016. 4. ○○. ~○○.)을 가기 전, 학생들이 들떠서 생활습관이나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학습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고 학급분위가 더 나빠져서, 이대로 수학여행을 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학생들이 자리에 앉은 상태로 눈을 감고 오른손을 앞으로 2~3분 정도 들고 있도록 하였다. 이는 4. 19.(화) 또는 20.(수)경이었던 것 같다.

‘엎드려뻥쳐’, 주먹 쥐고 앞으로 손들기 외에는 다른 체벌을 시킨 적이 없다.

## 2) 휴식권 침해 관련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흥분되어 있고, 흥분된 상태에서 안전사고(다음 주가 수학여행이었음)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차분하게 학교생활을 하자, 이렇게 흥분하면 수학여행가서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의도로 말을 하며,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야하는 학생들은 보내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장하여 학습을 시켰다. 이는 4. 19.(화) 또는 20.(수) 중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3일 동안 금지(쉬는 시간 금지)하였다는 것은, 학생들이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 3)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체육시간인지 어느 시간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학생들이 ‘세월호 리본’을 단체로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수업을 해야 하는데, 반 학생 대다수가 리본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들에게 “세월호는 그렇게 리본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책상 속이나 가방에 일단 집어넣어라. 진정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은 수업시간에 리본을 가지고 돌리거나 만지작거리며 장난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묵념하고 슬퍼한다. 장난 그만치고 수업해야 하니 집어넣어라”고 말하였다.

세월호 관련해서 ‘교통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6학년 ○반 학생들이 ‘세월호 리본’을 차고 다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리본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것은 보았다. 학생들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 4) 행동자유권 침해 관련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집단면담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정사실

- 1) 피조사자는 교사 경력이 ○년 정도이고,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 ○반의 담임을 맡고 있다.
- 2) 2016년 3월 말~4월 초 경, 피조사자는 ○○○ 학생이 수업 중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위 학생을 지도하였다.
- 3) 2016년 3월~4월 경, 피조사자는 학생 생활 및 학습태도를 지도하면서 해당 학생들에게 ‘엎드려뻔쳐’를 하게 시켰다.
- 4) 2016년 4월 중순 경, 6학년 ○반 학생들은 3~5분 정도 주먹을 쥔 상태에서 한 손을 책상 위로 90도 각도로 들고 있었다.
- 5) 2016. 4. 19.(화) ~21.(목)경, 6학년 ○반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 교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 6) 2016년 4월 중순경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들은 ○○명 중 ○○명가량, 6학년 ○반은 ○○명 중 ○○명가량, 6학년 ○반은 ○○명 중 ○○명가량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녔고, 6학년 ○반은 ○○명 중 한 명도 위 리본을 달지 않았다.
- 7)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피조사자가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

## 나. 판단

-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조례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체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해당 학생은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체벌행위는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조사자는 평소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 학생의 어깨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 학생)는 ‘피조사자가 위 막대기로 자신의 어깨를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 학생이 아파서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조사자가 막대기로 어깨를 찔렀다’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

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주장이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조사자는 2016년 3월 말~4월 초 경 ○○○ 학생을 지도하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위 학생의 어깨를 수회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2016년 3월~4월경 학생 생활 및 학습태도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엎드려뺨쳐’를 시켰다. 그런데, 피조사자는 학생들에게 ‘엎드려뺨쳐’를 시킨 것은 두 번<sup>1)</sup>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은 ‘엎드려뺨쳐’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최소 6가지의 경우<sup>2)</sup>의 예를 들면서, 가장 많이 한 학생은 3~4번 정도 했고, 학생들이 여러 명(7~8명)인 경우에는 교실 뒤 사물함 앞쪽에서 ‘엎드려뺨쳐’를 했고, 한두 명일 때는 교실 앞에서 ‘엎드려뺨쳐’를 했다고 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생들은 ‘엎드려뺨쳐’를 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엎드려뺨쳐’를 한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조사자는 최소 여섯 번 이상,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목적으로 ‘엎드려뺨쳐’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 두 달 정도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조사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시로 ‘엎드려뺨쳐’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두 번 중 첫 번째 경우(2016. 4. 4. 6학년 ○반 교실 무단 입실 관련)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2명은

---

1) 2016. 4. 4. 남학생 2명이 비어있는 6학년 ○반 교실에 몰래 들어간 사건,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학생들 관련  
2) 시간에 늦은 경우, 수업시간에 떠든 경우, 점심시간에 욕하면서 떠들었을 때, 수업시간이 되었는데 앉아 있지 않았을 때, 수업시간이 되었는데도 책을 안 펴놓았을 때 등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내려가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2~3분 정도 시켰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조사자는 학생들에게 ‘엎드려뺨쳐’뿐 아니라 ‘팔굽혀펴기’도 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조사자는 2016년 3월 말 혹은 4월 초에, 생활교육을 이유로 ○○○ 학생의 어깨를 나무막대기로 찔렀고, 같은 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약 두 달 동안,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엎드려뺨쳐’를 시켰으며, 어떤 학생들에게는 ‘팔굽혀 펴기’를 시켰고, 반 전체학생들에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 들고 있기(인정사실 4)항 관련)’를 시킨 것이 인정된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체벌에 해당되고,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학생이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휴식권 침해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학교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위 인정사실 5)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피조사자는 '2016. 4. 19.(화) ~21.(목)경 하루만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생들은 '3일 모두(3일째, 21일은 점심시간 이후로 해제)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은 정확히 3일을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화, 수, 목'이라고 요일을 특정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박탈당한 피해자들이고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셋째, 피조사자는 조사를 받던 당시 위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임에도,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하루였다'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학생들의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는 2016. 4. 19.(화)~21.(목) 총 3일 동안, 위 학교 6학년 ○반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시간을 일부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휴식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휴식권 침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하루의 모든 쉬는 시간을 박탈하는 경우 등은 휴식권 침해<sup>3)</sup>로 볼 수 있다.

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014년) 34쪽 사례 참조

피조사자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하려는 목적으로, 3일 동안 하루 종일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 인정되고, 피조사자가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을 징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쉬는 시간을 박탈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상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 3) 표현의 자유 침해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주장 등을 외부로 표현하는데 있어 억압, 강요 등을 받거나 검열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조사자는, 2016년 4월 중순경 학생들에게 ‘세월호 리본’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세월호 리본’으로 장난을 쳐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의 이야기만 하였고, ‘달고 다니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피조사자가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고 하면서, “군인은 나라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추모하지도 않으면서, 니네가 이런 것(세월호)까지 슬퍼하면서 챙겨야 하느냐?”, “세월호는 단순한 교통사고 일뿐이다.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 달고 다니면 혼을 내주겠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많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어떤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위 인정사실 6)항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상당수가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닌데 비해, 6학년 ○반 학생들은 아무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았고, 6학년 ○반 학생들만 위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둘째, 학생들의 주장4)을 확인한 결과, 위 인정사실 6)항과 같이 6학년 ○반만 착용자 0명이고, 6학년 ○반의 리본 착용률(○○명중 ○○명)이 가장 높아,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셋째, 학생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불만5) 및 문제 제기6)는, 누군가가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보이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며, 넷째, 피조사자는 문답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6학년 ○반 학생들이 리본을 달고 다녔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 다른 반 학생들이 리본을 달고 다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학생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 대답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주장 자체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섯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여 담임교사를 음해할 만한 특별한 사

4) “6학년 학생들 중 우리 반만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았다”, “특히 ○반은 거의 다 달았으며, 우리 반은 달려고 했는데 선생님께 혼날까봐 달지 않았다” 등

5) “친구들끼리 ‘담임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다는 게 이상한 사람인가?’는 등의 이야기도 했다”

6) “세월호 관련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선생님 혼자만 안 달면 되지 굳이 저희에게 달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2016. 4. 중순경, ○○○○초등학교 6학년 ○반 교실에서 세월호 리본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중 내심의 영역으로서,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다만, 그것이 내심의 영역을 넘어 외부에 표현되거나 실현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교사 역시 위와 같이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내심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나, 교사가 개인의 관점을 외부로 표현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여 ‘군인들의 죽음’, ‘교통사고’ 등과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중 내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학생들에게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한 것은, 학생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적 질서를 고려했을 때)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행동자유권 침해

학교 교실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교실 앞에는 칠판과 교탁이 있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 쪽에 있는 문을 앞문이라 하고, 교실 뒤에는 게시판과 사물함 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쪽에 있는 문을 뒷문이라고 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수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경우에 앞문을 사용한다면 수업에 방해가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업 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들이 교실의 앞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위 학생들이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조사자의 지시가 아닌 5년 남짓의 학교생활에서 배운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위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기타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함에 있어, 그 방법이 인권적인지 아닌지 고려하지 못하고,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조사자는 실질적으로 교사경력이 ○년이 되지 않고, 학생인권에 대해 적절히 교육받지 못하여,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서명)

[별지 :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 ⑤ 생략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 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